

## 독어에서 유표성과 병렬적 명사구의 어순제약\*

장기성(대구가톨릭대학교)

Jang, Ki-Sung. 2012. A Study on Markedness and the Word Order Constraint of Parallel NPs in German. *The Journal of Linguistic Science* 61, 233-258. This study presents an investigation into the word order of parallel NPs in German. Previous studies mostly focused on the word order of idiomatic parallel NPs in English with little research attention paid to that of non-idiomatic parallel NPs. Thus the study made the first attempt to investigate the word order of non-idiomatic parallel NPs. As for methodology, the investigator conducted an experiment as to how much the major principles of Cognitive Linguistics such as 'Me-first Principle', 'Naturalness Principle' and 'Salience Principle' could be applied to the markedness theory. Used in the experiment were the linguistic data from the search results at Yahoo! Deutschland. The findings show that the three principles can be applied to non-idiomatic parallel NPs as well as idiomatic parallel NPs and suggest that Koreans will be able to have very good results with the usage of parallel NPs in German by applying the three principles.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Key words** 유표성(markedness), 어순(word order), 병렬 명사구(parallel NP), 현저성의 원리(salience principle), 자연성의 원리(naturalness principle)

## 1. 서론

관용적 병렬 NP<sup>1)</sup>의 어순에 작용하는 기제에는 다양한 원리들이 사용되어왔다. 영어권을 중심으로 한 이 분야의 연구 성과는 괄목할만하다. 이 분야 연구의 큰 흐름은 우선 형태구조에 기반한 파니니원칙(Panini's Principle)과 음성 음운론에 기반한 Cooper/Ross(1975)의 원리는 이 분야 연구에 출발점이 되어왔다. 비교적 최근에는 병렬구조의 어순이 빈도수의 기제에 의해서도 제약될 수 있다는 주장에 이르고 있다. 지금까지 연구의 대상은 관용적 병렬 구에 집중되어왔다. 그 이유는 관용어의 특성상 어순이 고정되어있다는 측면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고정되어있는 구조는 어쨌든 가변적 구조에 비해서 연구 분석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관용적 병렬 NP에서 그 범위를 좁혀 비관용적 병렬 NP를 대상으로 삼아 이 구조어순에 작용하는 기제들을 살펴 보고자한다. 관용적 병렬 NP어순에 작용하는 중요한 원리로 간주되는 인지적 기제 가운데, '나 먼저 원리', '자연성의 원리' 그리고 '현저성의 원리'들이 비관용적 병렬 NP에서도 적용가능한지를 유표성의 장치를 통해서 가능성을 확인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본 연구에 예로 제시된 비관용적 병렬 NP들은 독일 Yahoo사이트<sup>2)</sup> 검색창에 등재된 병렬 명사구들이며, 이것을 분석 자료로 활용하였다. 이 창을 통해서 NP구조를 이루는 전항과 후항의 어순을 등재빈도의 양적비교를 통해서 유,무표성 식별의 중요한 잣대로 삼았다.<sup>3)</sup> 이를 통해서 관용적 병렬 NP와 비관용적 병렬 NP의 어순에 작용하는 기제들이 동일한 원리로 설명력을 갖는지를 고찰하는데 주

1) 본 논문에서 NP는 'Nominalphrase'의 약어로서 흔히 사용하는 '명사구'라기 보다는 '병렬 명사구'의 의미로 폭넓게 사용하였으며, 부분적으로 의미상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 NP앞에 '병렬'이라는 수식어를 넣는 경우도 있다.

2) <http://de.yahoo.com>

3) 예로서 병렬 NP인 Vater und Sohn의 경우에 Vater und Sohn 어순을 취하는 NP의 개수와 Sohn und Vater의 어순을 취하는 등재 개수를 비교하여 양적 우위를 갖는 NP구조에 무표적 특성을 부여하였다. 사용빈도가 높을수록 무표적 특성이 투영되기 때문이다.

\* 이 논문은 2012년도 대구가톨릭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한 것임

력하였다.

## 2. 관용적 병렬 NP와 비관용적 병렬 NP

관용적 병렬 NP는 전항과 후항의 어순이 고정되어있다. 이 고정된 어순에서 순서 바뀔이 일어나며 관용성이 상실되어 축어적 낱말결합 성격을 띠게 된다. 아래 (1)의 예를 보자.

- (1) a. Mit Tücke und List hat er sich beruflich gearbeitet(그는 교활하게 직장 생활을 해왔다)  
 b. Mit List und Tücke hat er sich beruflich gearbeitet(그는 능란한 솜씨와 노력으로 직업상 일을 해왔다)

이상의 (1a)에서 (Mit)List und Tücke로 구성된 병렬 NP는 관용구로 의미가 ‘교활하게’를 뜻하지만 (1b)의 병렬 NP는 Tücke와 List의 위치가 전도됨으로 관용적 의미가 사라지고 축어적 의미를 갖게 되었다. 이상에서처럼 관용적 NP의 구조는 이미 형태적으로 결빙되어 실제로는 하나의 어휘단위로 기능한다. 하지만 (1b)의 경우처럼 NP구조가 결합되면 개별낱말이 독자적 의미를 갖는 축어적 특성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1b)의 구조를 비관용적 병렬 NP가 되고, 또 (1a)는 관용적 병렬 NP가 될 것이다.

## 3. NP의 어순제약 원리

### 3.1 유표성과 언어분석

언어가 구조를 갖게 되는 것은 인간이 어떤 일반적인 사고법칙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며 언어의 구조나 기능을 발견하게 되면 인간의 보편적 사고법칙을 밝힐 수 있다. 이와 같은 사고의 근저에는 언어를 통해서 인간의 특성을 이해하려는 의미가 내포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차원에서 병렬적 명사구조를 구성하는 두 구성 성분 간에는 어떤 기제가 작동하는지를 유표성 이론에 의거하여 분석이 가능할 것이다. 유무표의 개념은 상호대립을 나타내는 언어학적 자질 중 어느 하나에는 +값을 주고 다른 하나에는 -값을 주어 전자를 유표(marked), 후자를 무표(unmarked)라 부르는 언어분석상의 원칙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대립쌍 가운데 무

표의 자질을 가진 것은 보다 일반적이며, 더 단순하고 원형적인 요소를 가졌으며, 반면에 유표의 자질을 가진 것은 보다 복잡하거나 특수하며 주변적이며 또한 덜 일반적이다.<sup>4)</sup> 예를 들어 독어에서 명사의 수를 나타내는 데는 단수와 복수가 있는데, 이때 형태상으로 단수는 무표적인 것으로 그리고 복수는 유표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의미상으로도 단수의 개념이 복수의 개념보다 더 기본적이고 일반적이기 때문에 무표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유표와 무표의 개념은 의미론과 문법 일반에서도 적용될 수 있다. 어휘의미론에서는 의미가 보다 특수화 및 전문화될수록 더 유표적이다. 예를 들어 Hund와 Hündin를 비교할 때 Hündin은 Hund에 성의 개념이 더 분화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Hund에 비해서 유표적이다.<sup>5)</sup>

### 3.2 선행연구: 관용적 병렬 NP를 중심으로

Abraham(1950)은 그의 논문 ‘Fixed Order of Coordinates’에서 병렬적 명사구조의 형식에 관해서 기술하면서 소위 말하는 ‘파니니 원칙’(Panini’s principle)을 소개하고 있다. 여기서 그는 병렬적 명사구조 어순에서 보편성을 보이는 것이 ‘파니니 원칙’임을 주장하며 영어 이외의 언어에서도 그 적용가능성을 소개하고, 예를 제시하고 있다.<sup>6)</sup> 이 논문은 필자가 아는 한 학문적 체계를 갖춘 최초의 병렬적 명사구조의 어순에 관한 연구 성과이다.

Malkiel(1959)은 ‘Studies in Irreversible Binomials’에서 비교적 많은 병렬구조들의 형식을 예로 제시하면서 전향과 후향에 놓일 수 있는 조건들과 원칙들을 예시하였는데, 주로 음운론적 및 의미론적 제약에 집중하였으며, 제약간의 위

4) Greenberg(1966:8-89)에 의하면 무표적인 것은 의미적으로 긍정적, 적극적이고, 시간과 공간적으로 그리고 심리적으로 나에게 가까운 쪽이며 강력하고, 사용빈도가 높고 우리에게 친숙하고 간단하며 언어 습득 시 먼저 습득되고 중화된다는 것이다.  
 5) 이와 같은 유무표의 언어분석은 최근에 언어학의 여러 층위에 걸쳐서 적용되고 있다. 음성-음운론, 형태론, 통사론, 의미론 그리고 외국어 습득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대립관계를 구분 짓는 도구로 사용되어왔다. 특히 이러한 분석의 중심에는 프라그학과(Linguistic Circle of Prague)가 있다. 이 학파는 음소와 음성체계를 유무표의 기준에 따라서 이분화 하는데 크게 기여한 바 있다.  
 6) 예로서 ‘butter and eggs, chapter and verse, dollars and cents, hammer and tongs’ 등과 같은 형식에 인과되는 예를 제시했다.

계로 일곱 가지로 나누어 설정하였다. 결국 Malkiel이 주장한 어순도 전향은 무표적 성격이, 후향은 유표적 성격의 의미군이 위치함을 암시하고 있다. 아래에 Malkiel의 관용적 병렬구조의 어순원칙들을 보면 다음과 같다.<sup>7)</sup>

- a. 전향이 후향에 비해서 시간적으로 앞선다(divide and conquer).
- b. 전향의 요소는 당해 사회에서 높은 가치를 가진다(Adam and Eve).
- c. 전향에는 강한 것이 위치한다(heaven or hell).
- d. 전향에는 주로 단음절이 위치한다(by and large).
- e. 전향을 근거로 해서 내적 확장이 생긴다(over head and ears > head over ears > head over heels).
- f. 번역 차용시 외래어의 어순에 따른다(milk and honey).<sup>8)</sup>
- g. 상기에 제시된 6가지 원리들이 상호작용하여 어순이 결정된다(do or die > c와 d의 상호작용의 결과이다).

이상에서처럼 NP의 어순제약 위계는 별도로 설정하지 않았다. 또한 음운론적 기준과 의미론적 기준이 혼재되어있다. 다음으로 Makkai (1972)는 ‘Idiom Structure in English’에서 어순 제약을 크게 8가지로 나누고 각 항을 또 다시 하위로 명세화 하였다. 점에서 Malkiel에 비해서 다소 진일보한 점은 있으나, 구획의 기준은 별반 차이없이 음운론적 기준과 의미적 기준이 모호하게 혼재되어 있다.<sup>9)</sup> Cooper/ Ross(1975)<sup>10)</sup>는 ‘Word Order’에서 어순 제약 접근을 Makkai, Malkiel에 비해서 형식과 내용면에서 새로운 원칙들을 제시했다. 우선 병렬구조의 인지적 제약(cognitive constraint)에서 ‘나’(me)에게 가까운 의미를 지닌 요소가

7) 선행연구 부문은 장기성의 논문(2010)에 기대어 쓰였다.  
 8) 여기서 예로 제시된 병렬구조는 원래 ‘a land flowing with milk and honey’로 성경 출애굽기 3장 8절에서 인용되었다. 축어적(literal) 의미로는 ‘젖과 꿀이 흐른 땅’을 뜻하지만 관용적 의미로는 ‘풍부한 산물’의 한 상징으로 흔히 쓰인다.  
 9) 8가지 가운데 중요한 몇 개를 보면, 전향에 여성보다는 남성이, 식품의 경우에 기본적 품목이 전향이, 방향어에서는 화자에 인접한 요소가 전향에, 일의 순서에서 먼저 일어나는 것이 전향에, 선호정도에서는 좋은 평가 받는 것이 전향에, 저 전설보다는 고 전설모음이 전향에 위치한다는 것이다.  
 10) Ross(1980)는 그의 논문 ‘Ikonismus in der Phraseologie’에서 병렬구조의 어순 제약에 관해서 독일어로 발표하였으나, 1975년에 Cooper와 함께 발표한 ‘Word Order’의 요약에 불과하다. 연구방법과 분석에서 단지 독일어 병렬구조에 적용한 점이 다를 뿐이다.

전향에 위치한다는 다소 인지적 개념의 접근방법을 시도하였다. 이것을 소위 ‘나 먼저 원리’(me-first principle)라고 부른다. 전향에 놓일 수 있는 요소로는 here, now, present generation, adult, male, positive, singular, patriotic, animate, friendly, solid, front, agentive, power source, living, at home, general, nominal, count 등과 같은 의미무리들을 설정하고, 각각에 예를 제시함으로써 인지적 측면에서 비교적 포괄적인 분석을 시도하였다. 또 그는 병렬구조의 음운론적 제약을 7가지로 나누면서, 그 범례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Fenk-Oczlon(1989, 1990, 1991)은 병렬구조의 어순 제약을 언어경제와 빈도수 등과 같은 기제를 통해서 밝히려는 연구를 시도하였다. 연구의 언어자료는 대체로 독일어에 집중되었으며, 이와 같은 시도 자체는 어순 제약의 기제에 있어 새로운 연구방법으로 평가된다. Moon(1998)은 그의 저서 ‘Fixed Expressions and Idioms in English’에서 병렬구조의 형식과 출현빈도 그리고 전향과 후향에 놓일 수 있는 의미자질을 몇 가지 기준에 의거 범례를 제시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그러나 기술방법이 매우 형식적이며, 추상적으로 기술하였다.

Müller(1997)는 그의 논문 ‘독일어에서 병렬구조의 제약’(Beschränkungen für Binomialbildung im Deutschen)에서 독일어 병렬구조 어순 제약을 음절제약과 강세의 적용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그의 분석방법은 언어 보편적 제약성에 바탕 둔 연구라기보다는 다소 작위적인 측면이 강하며, 사용범례도 제한적으로 소개하였다. 국내의 연구로는 윤희수(1988)의 ‘영어의 관용어에 관한 연구’가 있다. 여기서는 병렬구조의 어순양상을 의미적 측면과 음운론적 측면을 중심으로 기술하고 있는데, Malkiel(1959), Makkai(1972) 그리고 Cooper/Ross (1975)의 원칙들에 기저한 논문으로 영어와 국어의 병렬구조들을 몇 가지 원칙에 따라 대조적으로 비교 분석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은 대체로 관용적 병렬구의 어순제약에 집중하였다. 관용적 병렬구의 어순원칙들이 비관용적 병렬 NP에서도 적용 가능할 것인가가 본 연구의 중심적 주제가 될 것이다.

### 3.3 여러 제약 원리와 어순

#### 1) 나 먼저 원리

병렬적 NP에서 인지적 어순 기본원리에는 몇 가지가 있으나 ‘나 먼저 원리’

(Ich-vor- allem-Regel)<sup>11)</sup>로도 설명력을 갖는 것일까? 이 원리는 언중들이 여러 가지 현상이나 사태 그리고 사물들을 인지할 경우 자신의 가까운 쪽을 중심으로 먼저 파악한다는 인간 본유의 특성에 기인한다(Ross 1982: 282f). 이 구조에서는 전향에 위치하는 요소가 후향에 비해서 공간적, 시간적 및 심리적 거리가 더 가깝고 더 빨리 인지한다는데 바탕을 두고 있다. Müller(1997:5)가 주장하는 ‘현저성의 제약’(Salienzbeschränkungen)은 현저한 것이 현저하지 않은 것에 앞선다는 것으로 이 원리와는 상이하다.<sup>12)</sup> 이와 같이 어순에 기저하는 원리들은 이미 관용적 병렬 NP구조에서는 실험적으로 많은 연구가 되어왔다. 아래 (2)의 예를 보자(Cooper/Ross 1975: 67).

- (2) a. here and there  
b. this and that  
c. now and that  
d. sooner or later

(2)의 예는 영어 관용적 병렬구의 예로서, here, this, now 그리고 sooner가 there, that, later에 비해서 시간적 및 공간적으로 먼저 인지됨을 알 수 있다. 독일어의 경우에도 jetzt und immerda, früh und spät, damals und heute 등과 같은 병렬구도 ‘나먼저 원리’에 의존된 시공적 접근이 어순에 중요한 기제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위치과약의 원리들이 관용적 특성이 없는 일반 병렬 NP에도 적용될 것인가 하는 것이 본 연구의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다. 아래 시간에 관련된 NP의 예를 보자.<sup>13)</sup>

- (3) a. Anfang und Ende

11) Ross의 말을 빌리면 ‘나먼저 원리’는 ‘me-first principle’로 표현하고 있다(Ross 1980: 39f). 이 원리는 70년대 언어학에서 보편적 어순의 중요한 기준으로 삼았으며, ‘현저성(Salient)의 원리’와도 밀접히 관련되어있다(장기성 2003: 246).

12) Müller의 말을 빌면 다음과 같다(Müller 1997: 15): ‘Salientes geht weniger Salientem linear voran’(‘현저한 것이 덜 현저한 것에 비해서 어순에서 앞선다’).

13) 이와 같이 시간적 순서에 의한 어순은 도상성(iconicity)에서도 설명이 가능한데, 사건의 시간적 순서나 개념의 우선성 정도가 언어구조에 비례하거나 유의미하게 단위를 이루는 경우이다. 그 중 선행적 순서의 경우, 시간적 순서에 따른 합성어에서 앞선 시간과 사건은 앞자리 에, 후속 시간과 사건은 뒷자리에 놓이는 것은 효율성을 갖는다(임지룡 2010: 27).

- b. Enkel und Urenkel
- c. Frage und Antwort
- d. Leben und Sterben.

이상의 (3a)에서 보면 전항에 놓이는 Anfang과 후항에 놓이는 Ende의 병렬구는 시공적 전후관계를 통해서 어순에 투영되어 무표적 특징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어순은 'Ich bin der Anfang und das Ende', Anfang und Ende der fraz Revolution, Anfang und Ende zweiter Weltkrieg등이 보여주는 것처럼 Yahoo 검색창에서 9번의 표제어로 등장한다.<sup>14)</sup> 그러나 Ende und Anfang와 같은 어순은 Ein Ende und ein neuer Anfang등과 같이 단지 3차례 등장한다. 또 Enkel und Urenkel 병렬구도 시간적 흐름이 반영되어있으며, Enkel und Urenkel과 같은 어순은 많은 빈도를 보여주지만 반대로 Urenkel und Enkel어순의 NP는 등재된 표제어가 없다. 또 Frage und Antwort의 경우 Frage und Antwort로만 검색이 가능하고, 반대로 Antwort und Frage의 어순을 갖는 표제어조차 없다는 것은 한층 유표성이 높음을 암시한다. Leben and Sterben의 경우에도 Leben und Sterben 어순만을 허용하고 Sterben und Leben과 같은 구조는 허용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검색결과는 결국 Cooper/Ross의 어순원리가 비관용적 병렬 명사에서도 기제로 작용하고 있음을 암시한다. 아래(4)에서 거리에 관련된 병렬 NP 어순을 보자.

- (4) a. Erde und Mond
- b. Erde und Sonne
- c. Hund und Pony
- d. Nase und Ohr

(4a)의 경우에 화자를 중심축에서 보면 'Erde und Mond'의 어순은 공간적 원근이 반영되어 무표적이며, 반대로 Mond und Erde의 어순은 실제로 검색되지 않을 정도로 강한 유표성을 보여주는 NP이다. (4b)에서 Erde und Sonne의 어순구조는 21개의 검색빈도를 보였으나, Sonne und Erde 어순으로도 등재된 예

14) 여기서 9번이란 Yahoo검색창을 통해서 해당 어순을 갖는 병렬구의 출현횟수를 의미하는데, 많은 출현회수 보이면 그것은 빈도수가 많음을 뜻하고 무표적 가능성을 높여주게 된다.

가 없다. (4c)의 예 Hund und Pony는 물리적인 거리이라기보다는 인지적 거리로 볼 수 있는데, Hund는 애완용으로서 우리와 친숙성을 가지는 반면에 Pony는 가축으로서 친숙성을 가질 수는 있으나, Hund만큼은 미칠 수 없음이 공감적 원근을 통해서 어순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sup>15)</sup> (4d)에서는 Nase와 Ohr로 구성된 NP인데, 여기서 Nase가 Ohr에 비해서 나를 중심으로 볼 때 공간적으로 근거리에 위치하기 때문에 전항에 위치하고 상대적으로 먼 Ohr가 그 뒤를 잇고 있다.<sup>16)</sup>

다음은 화자의 심리적 거리를 우리 중심으로 볼 때, 우리의 것이 전항에 그리고 상대방의 것이 후항에 위치하는 경우로, 아래 (5)에서 몇 예를 보자(B.Z신문 인터넷판 2011.4.12).

- (5) a. Pressebegegnung mit Bundeskanzlerin Angela Merkel und dem Präsidenten  
der Republik Korea, Lee Myung-bak
- b. Berlin und Peking, die Frage der Menschenrechte
- c. Merkel und Sarkozy stoßen auf Proteste
- d. Berlin und Moskau

(5)의 예들은 '우리'라는 공동체로 뭉쳐지는 '애국적'(patriotic) 심성이 NP에 투영된 무표적 어순이다. (5a)에서보면 독일총리와 한국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보도하면서 애국적 심성의 발로로 독일총리를 전항에 한국대통령을 후항에 위치시키고 있다.<sup>17)</sup> (5b)에서도 독일의 B.Z.인터넷 판에서 중국의 인권상황을 언급하면서 Berlin을 전항에 Peking을 후항에 병렬시키고 있다. (5c-d)에서 독일 총리인 메르켈은 프랑스 총리 사르코지 앞에 위치하며 또 베를린을 모스크바 앞에

15) 여기서도 보면 Hund und Pony의 어순구조는 높은 빈도수를 보이지만 그 반대로 Pony und Hund의 어순은 여기서 검색되지 않았다.

16) 얼굴의 중심이 코를 중심으로 발달되어 있다고 본다면, 귀는 상대적으로 가장자리에 위치하는 셈이다. 따라서 Nase und Ohr가 무표적 어순으로 보인다. 실제로 Yahoo의 검색창으로도 이러한 어순이 절대적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다.

17) 하지만 당시 조선일보(2011.5.11)는 동일한 사안을 보도하면서, '이명박 대통령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9일 원전정책을 놓고 심각한 이견을 노출했다. 회담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원전 정책과 관련, 신재생 에너지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는 동의했고...'에서 보면 한국 언론들은 애국주의적 견지에서 한국을 전항에 위치시키고 있다.

위치시킴으로 독일 화자 중심의 애국적 심성이 병렬구조의 어순에 투영되었다. 우리말에서는 ‘한미 회담’이 ‘미한 회담’의 어순보다 좀 더 애국적 심성이 반영되기 때문에 무표적이다. 이것은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 무표적 어순이고, 미국 화자를 중심으로 볼 때는 물론 ‘미한 회담’의 어순이 무표적일 것이다.<sup>18)</sup>

병렬 NP에서 인칭의 어순은 사회적 역할과 인습에 관련하여 제약성을 갖는데, 이것은 문화와도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Hawkinson & Hyman(1974:147) 등은 기본적으로 NP에서는 1인칭<2인칭<3인칭 순의 어순을 취하는 것이 무표적임을 주장한다.<sup>19)</sup> 인칭은 나를 중심으로 인식하는 관습이 어순에서도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아래 (6)의 예를 보자(Yahoo: Partnervermittlung Ich und Du 광고에서).

- (6) a. Ich und Du
- b. ? Du und Ich
- c. Ich und mein Tiger
- d. ? Mein Tiger und Ich

(6a)에서는 ‘나 먼저 원리’에 의거, 화자가 중심이 된 Ich가 앞서고, 그 상대인 Du가 뒤따르는 것이 전형적 무표 병렬어순이다. (6b)의 경우 실제로 Du und Ich라는 병렬구조도 Yahoo사이트에서 많이 검색됨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상대방에 대한 공손의 관습(politeness convention)이 어순에 투영된 것으로 보이며 (Cooper/ Ross 1975:68), 이러한 어순은 결국 유표적 어순으로 설명이 가능할 것이다. (6b)와 (6d)에서 3인칭이 1인칭을 앞서는 유표적 구조로서 화자의 특별한 의도가 어순에 내포된 것으로 봐야할 것이다.

병렬 NP에서 전향은 화자를 중심으로 비교적 중요한 애원동물이, 후향에는 덜 중요한 애원동물이 위치된다는 것이다. 아래 (7)을 보자. (7a)처럼 Hund와 Katze를 비교해볼 때 Katze도 애원동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Hund에 비해

18) 미국의 입장에서는 ‘cowboys and Indians’어순을 더 무표적인 것으로 간주하지만, 인디언들의 입장에서는 ‘Indians and cowboys’라는 병렬구조가 더 무표적일 것이다.  
 19) 인칭대명사의 병렬어순은 화자가 청자를 선행한다. Clark & Clark(1977)에 의하면 ‘I and you’가 ‘you and I’에 비해서 무표적이며 언어습득과정에서도 you보다는 I를 먼저 습득한다는 것으로도 이를 반증하고 있다. 그러나 문화권에 따른 겸손인습에 따라서는 반대의 어순도 가능하다. 예로 우리말에서 ‘나와 당신’보다는 ‘당신과 나’의 어순이 무표적으로 보인다.

서 친숙성이 우리 인간에게 미칠 수는 없다는 것이 어순에 투영된 것이다. 아래 예를 보자.

- (7) a. Hund und Katze
- b. Katze und Maus
- c. Maus und Elefant
- d. Elefant und Krokodil

(7a-d)에서 우리 인간이 가축을 보는 친숙성의 위계를 일목요연하게 보여주고 있다. 말하자면 Hund>Katze>Maus>Elefant>Krokodil의 순으로 친숙성의 위계를 보여주며, 전향에 놓이는 가축일수록 무표적 특성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나타난다.

## 2) 자연성의 원리 제약

‘자연성의 원리’(naturalness principle)란 인지체계에서 단순하고 쉽고 긍정적인 쪽이, 어렵고 부정적이며 복잡한 쪽 보다 더 잘 인지되고, 일찍 습득되는 성향을 말한다. 이러한 특성을 어순과 관련하여 보면, 단순하고 긍정적인 쪽이 NP에서 앞자리를 차지한다는 것이다(Schwarz 1994. Deane 1996). 이 원리의 개념은 지각의 신경 심리학과 밀접히 연관되어있다. 예컨대 아래의 관점이 이 원리를 명시적으로 설명해주고 있다.<sup>20)</sup>

- (8) ‘at this point ‘more or less natural’(with respect to universals) corresponds to ‘more or less easy’ for the human brain‘ (다소 자연스러운 것이(보편적인 관점에서), 인간의 두뇌에도 용이하게 작용한다.)

또한 자연언어에서 보여주는 ‘자연성 원리’도<sup>21)</sup> 아래와 같이 유사한 기능을 갖는다.<sup>22)</sup> (9)에서 설명되는 기능들은 무표적 현상으로 NP에서 전향에 위치한다.

20) 여기서는 ‘빈도수’(frequency)가 ‘인지적 대가’(cognitive costs)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인임을 언급하고 있다(Dressler et al.: 1985).  
 21) ‘자연성의 원리’는 원래 음운론에서 출발하였으나, 형태론 등의 여타 층위로 적용이 확대되어왔다.  
 22) Witkowski/Brown(1983: 569f), 장기성(1996: 867f) 참고.

- (9) a. 어린이가 말을 보다 일찍 습득한다.
- b. 실어증 같은 언어장애에 비교적 영향을 받지 않는다.
- c. 언어변화에 비교적 저항적이다.
- d. 언어변화 과정, 특히 유추변화과정에서 빈번히 살아남는다.
- e. 보다 불규칙 변화를 한다.
- f. 형태론적으로 보다 짧게 기호화한다.
- g. 병렬구조에서 전향에 위치한다.
- h. 개인 언어에서 보다 높은 빈도를 보이거나 널리 분포되어 있다.

음운론에서 논해지는 ‘자연스러운 것’이 자연성원리와 유사하나, 물론 자연성 자체에 대한 정의는 다소 상이하다. 자연성은 유표성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사용되는데, 예컨대 보다 자연스러운 것이 보다 무표적임을 뜻하고, 역으로 보다 부자연스런 것이 보다 유표적이라는 것이다.<sup>23)</sup>

일반적으로 병렬 NP에서 앞쪽을 표현하는 지시체가 뒤쪽을 표현하는 지시체보다 더 빨리 인지된다. 이와 같은 인식의 제약은 인간의 인지적 특성과도 일치한다. 예컨대 인간이 직립보행이 가능해지면서 사물을 인지할 경우 별다른 노력 없이 앞쪽이 먼저 인지되며 이것이 어순에 반영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방향성은 영어의 ‘front and back’, ‘up and down’과 같은 NP의 관용적 어순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sup>24)</sup> 말하자면 시야의 선취권이 어순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아래 (10)의 예를 보자.

- (10) Hamburg an Bug und Heck - ja das gab es mal, Schiffe die voll stolz

23) 유표성은 원래 프라그 학파의 산물로서, 예를 들어 /t/와 /d/의 두 분절음이 있을 때, 양자는 유무성(voicing)의 구별을 위한 자질을 제외한 모든 자질을 공유한다. /d/를 기술하기 위해서는 /t/에게는 필요 없는 ‘유성음’이라는 자질이 필요하다. 이 때 우리는 /t/를 무표(unmarked)의 음으로, 그리고 /d/를 유표(marked)의 음이라 부른다. /t/는 /d/가 가지고 있는 자질을 하나 더 가졌다는 것은 ‘유표’(marked)가 아니라, ‘유표시’(marked/featured)라고 표현해야 맞다는 것이다. 유표와 유표시는 대부분의 경우 일치한다. 유표적인 것과 유표시적인 것을 최초로 구분한 것은 SPE였다. 양자의 괴리를 유표규약으로 조정하려 했다. 물론 앞으로 논해질 자연 형태론에서 사용하는 ‘유표성’이란 프라그학파에서 ‘유표시’ 성과와는 다른 것이다.

24) 우리말에서 ‘앞과 뒤’, ‘전과 후’ 같은 병렬구조도 이와 같은 자연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에 ‘뒤와 앞’, ‘후와 전’과 같은 병렬어순은 모국어 화자들에게 어색할 뿐 아니라, 수용가능성도 적어 보인다.

Hamburg im Namen und als Heimathafen - unter deutscher Flagge - in die Welt trugen....An diese Reedereien und Schiffe soll an dieser Stelle erinnert werden. Ein Klick auf die Reedereiflagge oder den Seitenriß bringt Sie sofort zur Flotte([http://www.buesummaritim.de/hamburgschiff/hamburg\\_schiffe.html](http://www.buesummaritim.de/hamburgschiff/hamburg_schiffe.html)).

이상의 (10)의 예에서처럼 배의 앞부분인 Bug가 앞에 놓이고 배의 후미인 Heck가 뒤에 위치함으로 우리의 인지기능을 용이하게 작용시킬 뿐 아니라, 자연스럽다는 것이다. 반대로 ‘Heck und Bug’의 어순을 취하는 병렬구는 Yahoo검색창에 등재되어있지 않다. 따라서 이러한 구조는 유표적 어순으로 간주된다. 아래 이와 같은 NP구에서 무표적 어순을 취하는 예를 보자.

- (11) a. Bug und Heck
- b. Stirn und Ohr
- c. Vorderseite und Hinterseite
- d. Vordergrund und Hintergrund

신체부위에서도 윗부분을 나타내는 명칭이 아래 부분을 나타내는 명칭에 앞서는 것이 인지적으로 보면 더 자연스럽다. 이러한 어순은 관용적 병렬 NP 뿐 아니라, 비관용적 NP에서도 무표적으로 작용한다. 아래 (12)의 경우 Yahoo의 검색창을 보면, ‘Kopf und Fußzeile’ 어순구조의 예는 다수 검색되지만 반대로 ‘Fußzeile und Kopf’어순의 예는 없다. 아래 (12)의 예를 보자.

- (12) a. Kopf und Fußzeile
- b. Kopf und Bauch
- c. Nase und Ohren
- d. Haar und Bartschneider

(12b)의 ‘Kopf und Bauch’와 같은 NP는 많은 수가 검색되었으나, (13)에서처럼역순인 ‘Bauch und Kopf’ 어순구조는 유표성을 띤 ‘임신부를 위한 광고문구’에서 유일하게 검색되었다. 따라서 전자가 무표적 어순으로 후자가 유표적 어순으로

봐야 할 것이다

([http://www.rund-ums-baby.de/forenarchiv/schwanger-wer-noch/Harter-bauch-und-kopf-schon-sehr-tief\\_14191.htm](http://www.rund-ums-baby.de/forenarchiv/schwanger-wer-noch/Harter-bauch-und-kopf-schon-sehr-tief_14191.htm)).

(13)



영어의 경우에도 신체부위를 병렬 NP로 나타낼 경우 윗부분에서 아래 부분으로 진행되는데, 이것이 어순에 반영된다는 것이다. 예로 'head and toe', 'nose and throat' 등은 인지적 용의성이 NP어순에 적용된 것이며, 이런 경우 모두가 무표적이다.<sup>25)</sup>

순서관습에서도 일정한 방향성이 NP구조에 투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Haiman 1985, Malkiel 1968), 이것을 어기면 화자는 인지적 부담이 오히려 가중될 것이 때문에 피한다는 것이다(장기성 2011: 326). 방향에 관련된 아래 (14)의 예를 보자.

- (14) a. Ost und West
- b. Nord und Süd(?)
- c. (die)Rechte und Linke
- d. rechte Flügel und linke Flügel

방향을 나타내는 NP구의 어순에서 '동서'의 방향성은 영어와 우리말에서 일치하지만, '남북'의 경우는 언어간 다소 자의적 어순을 가지며<sup>26)</sup>, '오른쪽'과 '왼쪽'

25) 이밖에도 'Kopf und Zahl', 'Kopf und und Hals', 'Nase und Hals' 등의 예는 무표적 어순이지만, 반대로 'Zahl und Kopf', 'Hals und Kopf', 'Hals und Nase' 등은 화자의 특별한 의도에 의해서 도치된 어순으로 파악할 것이다.

26) 병렬구조에서 동쪽은 서쪽을, 오른쪽은 왼쪽을 선행한다. 인도유럽 어족에 속하는 언어의 경우, 북남동서(North South East West)라는 배열로 방향성을 제시하지만, 그에 반해 중국어, 일본어 및 한국어에서는 '동서남북'(East West South North)으로 방향을 제시한다. 흥미로운 점

의 경우는 영어와 매우 상반된 어순을 취한다.<sup>27)</sup>

우리말에서 '좌우간', '좌우과' 등과 같이 좌가 선행하는데 반해서<sup>28)</sup> 영어에서는 'right and left', 'leftwards and rightwards' 등과 같은 우가 선행하는 어순을 취하는 것이 관습이다<sup>29)</sup>. 병렬 NP구조에서 수직과 수평이 결합되면, 수직이 수평을 선행한다. 아래 (15)의 예를 보자.

- (15) a. Reihe und Parallel
- b. Breite und Länge
- c. Nord und Süd
- d. Senkrechte und Waagerechte(Horizontalrechte)

수직과 수평에 관련된 병렬 NP구조에서 보면 수직이 수평을 선행하는 반면에 우리말에서는 수평이 수직을 앞선다. 우리말에서는 동-서, 남-북과 같이 수평관계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나서 수직관계인 남-북이 언급되는 어순을 취한다.<sup>30)</sup>

병렬 NP구조에서 일반적으로 화자와 우호적인 것이 비우호적인 것에 앞선다. 아래 (16)의 예를 보자. 여기서 Freund, Annehmen, Unterstützung, Frieden 등은 후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우호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우호와 비우

은 '동서'(East West) 순서는 동서양이 동일한 반면, '북'(North)과 '남'(South) 순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East-West 순서를 지키는 관습은 일출과 일몰, 새벽과 황혼이라는 일주 순서를 따르는 것으로 보인다.

27) 또 영어에서는 수직이 앞서는 반면 한국어에서는 수평이 앞선다. 영어에서는 북-남, 동-서의 배열로서 수직이 선행하며, 한국어에서는 동-서, 남-북의 배열로 수평이 선행한다. 그러나 세분된 방위표시법에 있어서 영어에서는 Northwest, Southeast처럼 수직-수평의 어순이 지켜지고 있는 반면에, 한국어에서는 북서/서북, 남동/동남에서처럼 양쪽 어순을 모두 허용한다는 점이다(박희문: 199).

28) 우리말의 경우에 '좌우간'을 '우좌간', '좌우과'를 '우좌과'로 어순배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좌가 우를 앞서는 병렬구조가 무표적 어순이 될 것이다. 이것에 관련된 예를 보자: 이같은 좌우대립을 깨치고 친일파를 제외한 민족 모두가 힘을 합쳐 민족분단을 극복하고 통일을 이루고자 시도했던 최초의 인물은 여운형이었다([http://mongyang.org/ver0906/sub3/sub2.php?code=sub3\\_2&idx=5241&page=116&ptype=view](http://mongyang.org/ver0906/sub3/sub2.php?code=sub3_2&idx=5241&page=116&ptype=view)).

29) 예로 우리말에서 '좌우'의 어순은 자연스럽지만, '우좌'의 어순은 거의 사용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좌우로 정렬'이 자연스럽지, '우좌로' 정렬'은 유표적 어순으로 보인다. 좌의정이 우의정에 비해서 위계나 권위에서 앞서는 것도 이러한 어순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30) 우리말에서 보면, '동서남북'의 어순을 취하지 '남북동서'의 어순을 취하지는 않는다. 만약에 그렇게 취한다면 유표적 조각으로 볼 수 있다.



호의 어순 NP구가 무표적 특성을 띠게 된다. 아래 (16)의 예를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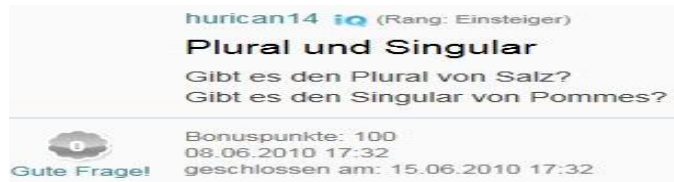
- (16) a. Freund und Feind
- b. Annehmen oder Ablehnen
- c. Unterstützung oder Bekämpfung
- d. Frieden und Krieg

NP구에서 단수는 복수를 앞서는 것이 일반적이다. 언어습득에서도 일차적으로 단수를 습득한 이후에 복수를 습득하며, 또한 기수를 습득한 연후에 서수를 습득하는 것이 좀 더 자연스러우며 무표적이라는 것이다. 아래 예를 보자.<sup>31)</sup>

- (17) a. Singular und Plural
- b. Monophthong und Diphthong
- c. Erster und Zweiter
- d. Monolog und Dialog

(17a)는 단수와 복수를, (17b)는 단모음과 복모음을, (17c)는 첫 번째와 두 번째를, (17d)는 독백과 대화를 의미하는 병렬구조로서 의미적으로 볼 때 무표적 특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17a)에서 ‘Singular und Plural’와 같은 어순은 무표적으로 검색되는 반면에, ‘Plural und Singular’와 같은 구조는 Yahoo창에서 보면 문법에 관한 질의응답식의 엉뚱한 한 댓글자의 예만을 보여줄 뿐이다. 아래 (18)의 예가 그 댓글자의 것이다 (<http://www.cosmiq.de/qa/show/2605244/Plural-und-Singular/>).

(18)



### 3) 현저성의 제약 원리

31) 이러한 병렬어순은 경우에 따라서 비중이 큰 것과 비중이 작은 것으로도 구분한다(채완 1982).

‘현저성의 원리’(salience principle)란 ‘두드러진 쪽’이 ‘두드러지지 않은 쪽’보다 먼저 지각된다는 원리인데, 이러한 인지적 원리가 NP 어순에서도 그대로 투영된다. 말하자면 적극적인 요소와 소극적인 요소가 있을 경우, 우리의 인식은 적극적인 요소가 두드러짐으로써 쉽게 지각될 뿐 아니라, 선호한다. NP구조 어순에서도 두드러진 것이 두드러지지 않는 것에 앞선다는 것이다. 따라서 현저성의 원리는 ‘힘의 원리’(power source)이기도 하다(Müller: 16).

관용적 NP구에서 남성이 여성을 앞서는 것이 일반적이다. NP구조에서도 남성이 전향에, 여성이 후향에 놓이는 것이 무표적인데, 이것은 힘의 논리가 어순에 작용하기 때문이다. 아래 (19)의 예를 보자.

- (19) a. Adam und Eva(Mann und Frau)
- b. Herr und Frau
- c. Jung und Mädchen(Venus und Jupiter) Adam und Eva
- d. Bruder und Schwester

(19a)의 ‘Adam und Eva’는 무표적 어순이, (20)처럼 어순이 도치된 ‘Eva und Adam’은 유표적 어순으로서 화자의 특별한 의도성이 내포된 것이다<sup>32)</sup>. Yahoo의 검색결과도 ‘Eva und Adam’과 같은 어순은 주로 영화나 책 그리고 TV의 제목 등에 특별히 여성이 강조된 경우에 사용됨을 알 수 있다. 아래의 영화포스터도 이와 같은 유표성을 보여줌으로서 청자에게 범상치 않은 내용이 전개될 것임을 암시한다(<http://de.yahoo.com/>). 이것은 일종의 반어법적 기법을 사용함으로써 청자에게 관심을 유도하는 효과가 기대되기 때문일 것이다.

(20)

32) ‘Vati und Mutti’의 어순이 일반적으로 무표적인 것으로 보이지만, 이 병렬구조를 어린이의 입장에서 본다면 ‘Mutti und Vati’의 어순이 선호될 것으로 보인다. 특별히 어린이의 입장이 조건 지워지면 유표적 어순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우리말에서도 ‘딸 아들 구별 말고, 하나만 낳자’라는 구호도 의식적으로 딸이 강조된 유표적 어순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병렬 NP에서 일반적인 것을 지칭하는 표현이 특수한 것을 지칭하는 표현에 앞서는 것이 무표적이다. 이러한 인식은 일반적인 것이 토대나 기저를 이루는 반면에, 특수한 것은 이것을 중심으로 파생된 것으로 인지하는데 기인한다. 아래 (21)의 예를 보자(Yahoo사이트, Babygramm von Sterngestaltung, Das Buch und der Um Schlag).

- (21) a. Buch und Umschlag
- b. Lehrer und Schüler
- c. Erde und Mond
- d. Thema und Struktur

강함이 약함을 선행하는 NP가 약함이 강함을 앞서는 NP에 비해서 무표적이다. 말하자면, 두드러진 요소가 덜 두드러진 요소의 앞에 놓인다는 현저성의 원리가 여기에 적용된 것으로 보인다. 아래 (22)의 예를 보자.

- (22) a. Gin und Wermut
- b. Scotch und Soda
- c. Baccardi und Malve
- d. Rye und Coke

(22)의 NP구에서 두 항 가운데 전항의 낱말이 상대적으로 후항에 비해서 알코올의 도수가 높다.<sup>33)</sup> 말하자면 힘이 센 항이 전항에 위치한다. 실제로 화주(strong liquors)로서 알려진 ‘Gin’은 알코올이 적어도 38% 이상을 함유하며,

‘Vermut’는 포도주액에 향료를 섞은 술로 알코올이 14.4%에서 22%를 함유한다. 따라서 ‘Gin’과 ‘Vermut’가 병렬적 NP를 취한다면 우리의 인지는 ‘Gin’ and ‘Vermut’의 어순으로 인지하는 것이 무표적 이라는 것이다(장기성 2010: 40).

병렬 NP구에서 일반적으로 성인(+Erwachsene)이 미성년(-Erwachsene)을 앞서는 것이 무표적이다.<sup>34)</sup> 성인이 미성년에 비해서 사회적 관습상 우세한 집단으로 간주되는 것이 반영된 결과이다. (23a)에 제시된 ‘Eltern und Kinder’의 어순은 Yahoo검색창에는 양적 우세한 예를 보여준다. NP에서 전항이 성인을 그리고 후항이 미성년 관련 항을 구성함으로써, 무표적 어순을 보여준다. 아래 (23)의 예를 보자.<sup>35)</sup>

- (23) a. Eltern und Kinder
- b. Katze und Kätzchen
- c. Kuh und Kalb
- d. Vater und Sohn

반면에, (24)에 보여주는 ‘Kinder und Eltern’와 같은 어순의 예는 어린이들이 중심이 된 사이트에서 유일하게 찾아볼 수 있는데, 말하자면 이것은 유표적 특성이 투영된 것이다. 아래 예는 유표성이 반영된 것이다.

(24)



33) 우리말에서도 ‘소맥주, 소콜, 맥콜’ 등은 이와 같은 원리들이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34) 여기에 해당되는 예를 보면 다음과 같다: Vater und Sohn sind die bekanntesten Figuren des deutschen Zeichners e.o.plauen. Die textlosen Geschichten handeln von den Erlebnissen eines rundlichen, kahlköpfigen Vaters und seines struwelpetrigen Sohnes, die sich mit diversen Alltagssituationen herumschlagen([http://de.wikipedia.org/wiki/Vater\\_und\\_Sohn](http://de.wikipedia.org/wiki/Vater_und_Sohn)).

35) 병렬구조 ‘Vater und Sohn’의 어순이 무표적이다. Yahoo검색창에서 ‘Sohn und Vater’라는 표제어로는 등재되어있지 않는 것으로 보아서 유표적 어순으로 간주된다.

우리말에서도 ‘부모 자식’ 대신에 ‘자식-부모’의 어순을 가진다면 유표적 어순으로 간주해야 할 것이다.<sup>36)</sup>

병렬 NP구조에서 긍정적인 향이 부정적인 향에 비해서 앞선다. 긍정과 부정의 병렬어순은 인간의 인지적 가치판단과도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데, 이것은 관용적 병렬구조인 Freund und Leid, Leben und Tod, süß und sauer 등에서도 이러한 어순이 반영된 것을 찾아 볼 수 있다.<sup>37)</sup> 아래 (24)의 예를 보자.

- (25) a. Plus oder Minus
- b. Sieg und Niederlage
- c. Gewinnen und Verlieren
- d. Lachen und Weinen

(25a)의 ‘Plus und Minus’의 경우에는 어순제약이 무표적임을 Yahoo검색창이 보여준다. 반면에 ‘Minus und Plus’ 어순구조에 대한 Yahoo 지식검색창에는 청소년간의 질의응답을 통해서 해결책을 찾는 예로서 유표성이 함축된 내용이 매우 흥미롭다. 아래 그 예를 보자 (<http://de.answers.yahoo.com/question/index?qid=20090827234642AAhqWEv>).

26)



병렬 NP구조에서 행위를 주도하는 것이 전향에, 행위를 당하는 쪽이 후향에

36) ‘자식과 부모’라는 어순의 병렬구조는 유표적 구조로서 부모보다는 자식이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상황에 제한적으로 설명력을 갖는다(<http://cafe.daum.net/scnam11/9Bsj/597?docid=1Blu79Bsj> 597|20120407152256&q=%C0%DA%BD%C4%BA%CE%B8%F0).

37) 그러나 우리말에서도 ‘사생결단’과 같은 경우는 채완(1982)에 의하면 도치의 병렬어순으로 현시점을 기준으로 이동되었다가 다시 원위치로 회기하는 원칙으로 설명한다. 말하자면 죽음을 각오한 강한의지의 표현이 강조된 유표적 어순으로 설명하고 있다.

위치한다. 현저성의 원리가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아래 (27)의 예를 보자.

- (27) Eine Katze und eine Maus schließen Bekanntschaft. Die Katze gesteht der Maus Freundschaft und gar große Liebe, so dass die Maus einwilligt, ein gemeinsames Haus zu beziehen. Gemeinsam beschließen sie für den Winter einen Vorrat anzulegen, damit sie in der kalten Jahreszeit nicht Hunger leiden müssen ([http://de.wikipedia.org/wiki/Katze\\_und\\_Maus\\_in\\_Gesellschaft#Inhalt](http://de.wikipedia.org/wiki/Katze_und_Maus_in_Gesellschaft#Inhalt)).

(27)의 Katz와 Maus에서 병렬 NP구를 구성하는 전향은 힘의 논리에서 행위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경우이고, 후자는 상대적으로 전향에 의해서 행위를 당하는 어순을 취함을 알 수 있다. 어순에 현저성이 투영된 결과로 보인다. 이와 같은 병렬구조에서 역으로 ‘Maus und Katze’의 어순을 가지는 검색결과는 없었다. 따라서 이것은 유표성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로서 Subjekt und Objekt, Sprecher und Hörer, Arbeitgeber und Arbeitnehmer 등도 행위의 주도여부에 따라 전향과 후향의 어순이 제약됨으로 무표적 어순이 제약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아래의 도식은 이와 같은 어순을 반영한 예이다.

(28)

Katze und Maus in Gesellschaft  
nach den Gebrüder Grimm



NP구에서 힘의 원천(power source)측면에서 보면 강한 쪽이 전향에 상대적으로 약한 쪽이 후향에 위치하는데 아래 (29)의 예를 보자. (29a)에서 Mofa는 ‘오토바이’로서 차체에 발동기가 부착된 기구라면 Roller는 ‘외발 굴림판’으로서 사람의 인위적 힘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작동되는 기구이다. 따라서 병렬구조에서도 ‘Mofa und Roller’와 같은 어순이 더 자연스럽다.<sup>38)</sup> (29b)의 예에서도 Sonne가 상대적으로 Meer를 앞서는, 힘의 논리가 어순에 반영된 좋은 예가 될

것이다.<sup>39)</sup> 힘의 논리에 의해서 어순이 좌우되는 아래 (29)의 예를 보자.

- (29) a. Mofa und Roller
- b. Sonne und Meer
- c. Auto und Motorrad
- d. bourbon and Coke
- e. Pferd und Reiter

일반적으로 병렬 NP의 어순에서 중요한 영양소는 주변적 영양소에 비해서 앞선다.<sup>40)</sup> 이러한 어순은 현저성의 원리를 반영한 것으로 보이는데, Brot가 Butter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중요한 요소이며, 또 Butter가 Margarine에 비해서 좀 더 비중 높은 영양소임이 어순에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영어에서도 ‘bread and butter’의 어순이 자연스럽고, 우리말에서 ‘밥반찬’이지 ‘반찬밥’의 어순은 매우 생소하며 유표성이 반영된 것이다. 아래 (30)의 예를 보자.

- (30) a. Brot und Butter
- b. Butter und Margarine
- c. Bratwurst und Sauerkraut
- d. Salz und Pfeffer

병렬 NP에서 사회적 지위가 높거나 힘이 센 항이 낮거나 약한 항에 앞선다.

---

38) 물론 ‘Roller und Mofa’와 같은 어순은 유표성이 투영된 것으로 Mofa에 비해서 Roller를 상대적으로 더 돋보이게 하기 위한 병렬구조로 봐야할 것이다. 실제로 Yahoo에서 보면 표제어로 ‘Mofa und Roller’가 대부분이며, ‘Roller und Mofa’ 어순은 제한된 광고에서 찾아볼 수 있다.

39) Sonne und Meer - dies ist der Name unserer Ferienwohnungen in St. Peter Ording. Auf einem ruhig gelegenen Grundstück unmittelbar am Dünen-Naturschutz-Gebiet bieten wir Ihnen schöne Ferienwohnungen für Ihren Urlaub an(<http://www.sonne-und-meer.de/>).

40) 물론 Salz und Brot와 같은 어순도 Yahoo의 검색창에 나타나지만, 이것은 화자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어순을 반전시킨 것이다. 빵과 소금에 관한 댓글 형식에서 소금이 빵 보다 더 가치 있었음을 기술한 글이다. 예를 보자: Re: salz und brot Salz war früher ein teures Produkt und zeugte von Wohlstand. Brot stillte den Hunger. Mit dem Schenken von Brot und Salz wünscht man den Beschenkten also daß sie in Zukunft nie mehr Hunger leiden müssen und Wohlstand haben sollen. Ob es diese Sitte auch in anderen Ländern gib kann ich Dir nicht sagen(<http://www.wer-weiss-was.de/theme81/article169929.html>)

아래 (31)과 같이 한국어나 영어 모두에서 사회적 신분이 높거나 영향력이 높은 항이 NP구조에서 앞섬을 알 수 있는데, 아래 (31)의 예를 보자.

- (31) a. Meister und Sklave
- b. Meister und Lehrling
- c. Professor und Studentin
- d. Gott und Ich

하지만 상기 (31)의 어순제약과는 상반된 경우를 보면, mum and dad, father and grandfather, ladies and gentlemen 및 bride and groom 등과 같은 NP구조는 화자에 의해서 의도된 어순 배열로 봐야할 것이다. 아래 (32)의 예를 보자.

(32)



(32)의 Sklaven und Master와 같은 NP도 무표적 환경에서는 Master und Sklaven과 같은 NP의 어순을 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32)의 표제어의 어순은 무표적 특성이 아니라, 이것은 독일의 일종의 포르노 홈페이지라는 특수한 맥락에 의존된 유표적 특성으로 설명이 가능할 것이다(장기성 2011: 328).

NP구조에서 생물이 무생물을 앞선다는 어순 원리로서, 여기서 생물이란 사람과 동물이 포괄된다. 이와 같은 생물과 무생물의 어순을 가진 병렬 NP의 어순이 무표적인 것으로 간주되는데, 아래의 (33)의 예를 보자.

- (33) a. Menschen und Maschinen
- b. Mann und Motorrad
- c. Pferd und Wagen
- d. Künstler und Schnaps

이상의 (33)에서 보면, 전항이 사람이나, 동물이 위치하고 후항에는 주로 사물들이 위치하고 있다. (33a)의 경우는 검색빈도가 높지만, (33b)는 빈도가 전무하다. 사람이나 동물은 유기체로서 사물에 비해서 우세한 종으로 현저성이 작동하

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어순이 전도될 경우는 의도성이 내포된 병렬구조가 될 것이다. 예로서 'Mensch und Tier'의 어순은 독어에서 매우 규범적 무표 어순이지만, 'Tier und Mensch' 어순은 동물이 인간보다 강조된 의도성이 내포된 NP구조로 봐야할 것이다. '동물보호 협회'의 홈페이지를 보면, 이와 같은 유표성을 전형을 잘 보여준다.

(34)



#### 4. 결론

본 연구는 관용적 병렬 NP어순에 작용하는 중요한 원리로 간주되는 인지적 기제 가운데, '나 먼저 원리', '자연성의 원리' 그리고 '현저성의 원리'들이 비관용적 병렬 NP에서도 적용가능함을 유표성의 장치들을 통해서 비교분석하였다. 그 결과 관용적 병렬 NP와 비관용적 병렬 NP의 어순에 작용하는 기제들이 동일한 원리로 설명력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Yahoo의 검색창에 의한 NP구조의 빈도수가 반드시 유,무표를 결정할 수 있는 결정인자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이제까지 독어 사용자들에 의해서 활용된 표제어 어순의 축적이라는 점에서는 매우 현실성 있는 자료임에는 틀림없다. 따라서 향후 외국어로서 독어를 학습하게 될 초, 중급 수험자들이 이 원리에 입각하여 NP구조에 관련된 작문을 할 경우, 생소한 배어법상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지침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 참고문헌

박희문. 1990. “영한 기계번역을 위한 구구조 규칙의 수립”, 『현대영어영문학』 32, 163-212.  
 임지룡. 1997. 『인지의미론』, 탑출판사.  
 임지룡. 2010. “어휘의미론과 인지언어학”, 『한국어학』 49, 1-35.

윤희수. 1988. 「영어 관용어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장기성. 1996. “모사성에 관한 연구”, 『독일어문학』 4, 857-876.  
 장기성. 2009. “관용적 이항구조의 어순”, 『언어과학연구』, 52, 197-242.  
 장기성. 2010. 「영어의 관용적 이항구조 어순제약」, 박사학위논문.  
 장기성. 2011. “독어의 관용적 이항구조 어순제약”, 『독어교육』 50, 131-155.  
 채완. 1985, “병렬의 어순과 사고방식”, 『국어학』 14, 463-477.  
 www. de. yahoo  
 B.Z(Berliner Zeitung) Internet Site.  
 Yahoo: Partnervermittlung.  
<http://www.buesummaritim.de>.  
<http://www.rund-ums-baby.de>.  
<http://de.wikipedia.org>.  
<http://cafe.daum.net>.  
 Abraham, R. D. 1950. “Fixed Order of Coordinates”, *Modern Language Journal* 34, 267-289.  
 Allan, K. 1986. *Linguistic Meaning*, Routledge & Kegan Paul: London  
 Bock, J.K. 1982. “Toward a Cognitive Psychology of Syntax”, *Psychological Review* 89, 1-47.  
 Clark, C. & E. Clark, 1977. *Psychology and Language*, Harcourt Brace Jovanovich Inc: New York.  
 Comrie, B. 1989. *Language Universals and Linguistic Typology*,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Conley, K. & W. Cooper. 1981. “Conjoined Ordering of Color Terms by Children and Adult”, *Studies In Language* 5, 305-322.  
 Cooper, W. E. & J. R. Ross, 1975. “World Order”, *Papers from the Parasession on Functionalism*, 63-111.  
 Dressler, W. U. 1985. *Morphology*, Ann Arbor: Karoma Publishers.  
 Erben, J. *Einführung in die Deutsche Wortbildungslehre*. 2. Aufl. Berlin: Erich Schmidt.  
 Ertel, S. 1977. “Where do the Subjects of Sentences Come from?” Hillsdale: *Lawrence Erlbaum*, 141-168.  
 Evans, G. 1980. “Pronoun”, *LI* II, 337-362.

Fenk-Oczlon, G. 2002. "Kognitive, Ökonomie-Sprachliche Universalien", *Namen, Sprachen und Kultur*, 203-220.

Haiman, J. 1985. *Natural Syntax*,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Hawkinson, A. K. & L. W. Hyman, 1974. "Hierarchies of Natural Topic in Shona", *Studies African Linguistics* 5, 147-170.

Keenan, E. & B. Comrie, 1977. "Noun Phrase Accessibility and Universal Grammar", *Linguistic Inquiry* 8, 63-99.

Kuno, S. 1976. *Subject, Theme, and the Speaker's Empathy*, New York : Academic Press.

Makkai, A. 2004. *A Dictionary of American Idioms*, Chicago: Barron's

Malkiel, Y. 1959. *Studies in Irreversible Binomials*, Oxford: Basil Blackwell.

Mayerthaler, W. 1981. *Morphologische Natürlichkeit*, Wiesbaden: Athenaion.

Meisel, J. 1983. *Deutsch als Zweitsprache*, Tübingen: Gunter Narr.

Moon, R. 1998. *Fixed Expressions and Idioms in English*, Oxford: Clarendon Press.

Müller, G. 1997. "Beschränkungen für Binomialbildung im Deutschen", *Zeit für Sprachwissenschaft* 16, 5-51.

Murdock, B. B. 1962. "The Serial Position Effect of Free Recall",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64, 482-488.

Lutz, L. 1981. *Einführung in die Thema-Rhema-Theorie*, Hamburg: Buchagentur.

Osgood, C. E., W. H. May & M. S. Miron, 1975. *Cross Cultural Universals of Affective Meaning*, Urbana: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Osgood, C. E. & J. K. Bock, 1977. *Saliency and Sentencing*, Hillsdale: Lawrence Erlbaum.

Ross, J. R. 1980. "Ikonismus in der Phraseologie", *Semiotik* 2, 39-50.

Schwarz, M. 1994. *Cognitive Semantics*, Tübingen: Gunter Narr.

Schippan, T. 1984. *Lexikologie der Deutschen Gegenwartsprache*, Leipzig: VER.

Titone, D. T. & C. M. Connie, 1994. "Descriptive Norms for 171 Idiomatic Expressions", *Metaphor and Symbolic Activity* 9, 247-270.

Trubetzkoy, N. S. 1939. *Grundzüge der Phonologie*, Göttingen:

Vandenhoeck.

Zipf, G. K. 1949. *Human Behavior and the Principle of Least Effort*, Massachusetts: Addison Wesley Press.

장기성  
 712-702 경북 경산시 하양읍 금락리 330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양교육원  
 전화번호: (053)850-3144  
 전자우편: ksjiang@cu.ac.kr Fax:(053)852-8030

투고논문접수일	2012년 5월 10일
논문심사일	2012년 5월 17일
심사완료일	2012년 6월 13일